

연중 제 17 주 일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기도서 P. 399 A해  
 제1독서 (지서 3, 5, 7-12절)  
 제2독서 (로마 8, 28-30절)  
 복 음 (마태 13, 44-52절)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구슬은 꺾어야 보배

김 병 열신부

신학생 시절, 가끔 있는 명동성당에 큰 예절을 참례하기 위하여 전차를 타고 동물원 돌담 옆을 지낼양이면 젊은 남녀들이 팔장을 끼고 불이 달듯 달듯하게 아슬아슬한 정다움 속에 무슨 이야기인지 하며 걷는 것을 보곤 하였었다. 그 모습은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나의 마음 속에서 승화하고 있었다.

신학교에서는 거의 매주일마다 사회 인사를 모셔다가 한두어 시간 강의 듣고 있었는데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고등법원장으로 계시던 김홍섭 선생님의 “여기에 계시는 여러 학사님 지금이 가을인데 덕수궁 비원돌담 옆을 남녀 쌍쌍이 걷고 있는 모습이 행복하게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하는 말씀에 온 장당은 뉘죽은듯 조용하였으나, 나는 행복하게 느껴지는 현으로 기울어 진지 오래전부터였다. 그러나 김홍섭 선생님께서 반론을 설파하시는 것이었다.

물론 행복하게 보시는 학사님은 정상적입니다. 그때 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쳤다. 말씀은 계속되었다. 사람의 본능중에 하나인, 한 남자는 한 여자를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여러 학사님들은 이것을 주님에게 희생으로 바쳐 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포 하시기 위해서 지금 수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담옆을 걷고있는 청춘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 불안하고 부자유한 때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학사님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서 일대 일의 노예적인 마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다운 자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내외적 미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세월이 가면 실증이 날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모든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되며 다만 하나의 진주를 얻기 위하여 전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인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진주가 세속인에게는 하나의 돌덩어리로 보이겠지만 우리 학사님들은 이진주의 값어치를 매일 매일 계산하여야 하며, 이것을 얻도록 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학사님 여러분 우리가 하여야 할 의무, 마땅히 사랑하여야 할 사람, 하나 하나를 진정으로 사랑할때 우리는 이 값진 진주를 나의 가진 모든것을 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값진 진주를 꺾어버리고 살때가 많으나 다른이가(악마) 차지하기전에 내가 얻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류 천주교회 주임신부)



## 아파아트(我破我投)

…其二(우리의 슬픔)

아파아트(我破我投), 또다른 말로 풀이해보면 “제 무덤을 판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하기가 저 자신을 부수어 던질라때 미리 무덤을 파놓아야 하리라. 이번 사건도 그렇다. 힘들어 올라간 높은 자리를 프리미엄과 바꾼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명하다는 저명인사들—몇구멍으로 호박씨 잘까는 저명인사들인지는 몰라도—의 이름 석자가 오물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말았다. 제 무덤을 파기는 왔다.

대학교수, 초중고교 교사, 언론인, 문필가, 의사—이들은 정말로 이 사회의 양심이요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또 기대를 갖는다. 양심이 무너지진 사회는 도둑놈 세상이요, 더러워지고 흐려진 거울로 바라보는 세상은 암흑세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던 오빠에게서 소식이 없을때, 그 누이동생은 오빠를 원망하고 미워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이다. 물론 오빠의 안부를 걱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설마, 무언가 잘못 되었겠지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뇌물의 한계론>이 대두되는 아파아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한가닥의 기대마저 끝장이 나고 만 것이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1할정도만 법적인 제재 내지는 파면조치를 당한다고 한다. 나머지 공직자들은 경고조치로 끝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시골 국민학교 선생님이 파면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유인즉,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논두렁에 콩을 심은뒤, 너무 더위 목욕(수영)을 허락했는데 아이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다. 당국의 명에 따라 공무수행을 하던 병아리 선생님은 무더위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다가 파면을 당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 숲 정 이 산책







# 내일의 주인공

김 중 길 신부

1977년 전주교구 교세 통계표에 의하면  
 유치원생 : 남 379+여 323=702명  
 국민학교 교리반 : 남 1,890+여 2,484=4,374명  
 중·고생 교리반 : 남 1,101+여 1,334=2,435명  
 대학생 교리반 : 남 47+여 63=110명이다

그 외에도 교리반에 참석하지 않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고, 200개가 넘는 공소에는 거의가 교리반이 없는 상태이다. 공소에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더 많다. 어떻게 볼때 주일학교와 중·고등학생 교리반에 참석 해야할 대상자 수는 2만명이 훨씬 넘을것같다. 전주교구 전신도의 5분의2(2/5)에 해당하는 수이다.

가톨릭 시보 78. 6. 25일자 3면에는 서울 삼양동 성당의 주일학교 후원회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여성 꾸르실리스타 2~3명이 일요일 한시간 수업인 주일학교 이지만 어린이들의 종교 교육과 정신교육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을 깨닫고 주일학교 운영에 참여했다. 주일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 참기름 장사에 나서기도 했고, 교사가 부족했을때 직접 교단에 서기도 했다. 매일 오후 7시 미사는 어린이차지로 T.V프로, 공놀이를 팽개치고 모여드는 어린이들로 가득차고, 매일 저녁 성당으로 달려가는 자녀들을 보고 어른들은 일종의 호기심을 갖게됐으며, 자녀와 함께 미사에 참석한 부모들은 기쁨을 맛보고 교회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교구내 각 본당이나 공소에 이런 열성있는 분 몇 분만 있었다라도 주일학교가 이렇게까지 터덕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어린이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자.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키워갈 육체적 및 정신적 모든 도움을 받는다.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온갖 보살핌을 받는다. 어린이는 부모와 어른들의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어린이는 받기만 하지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어린이는 오만을 부리지 않는다. 복잡한 것이 없고, 단순하고 순진하다. 편견이 없고 아는 척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저 어린이는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자란다.

그러나 어린이는 미래의 약속이며, 미래의 보배다. 얼마후면 이 어린이들의 세계가 올 것이고 지금의 기성 세대는 노인이 될 것이다. 내일의 주인공을 위해, 우리는 지금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성당신축이나 성인교육, 성모상 전립등... 그래서 여기에 많은 헌금을 바치고 노력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해야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살림을 하기위해서 자녀의 교육

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상투 수단과 같다. 그렇게되면 현재의 살림은 유지되지만 미래의 세계는 암담하다.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국민학교는 보내야 글을 아는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것이다. 지성있는 독지가라면 내일의 세계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헌금하고 회사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이런 독지가가 없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수 없다. 교회는, 한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출혈하는 것처럼 어린이, 중·고등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출혈을 해야 할 것이다.

각 본당 사도회에서는 그 본당 전체 예산의 5분의 2(2/5)를 주일학교, 중·고등학생 교리반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교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고, 교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고, 교리교사를 길러 적절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실현될때 교회 장래는 기대할만 하다!

어린이, 중·고등학생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일요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교우들은 각기 자기 본당이나 공소의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 교리반의 실태를 알아 보고 무엇인가 죄책감을 느꼈다면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주일학교 교리교사 전주교구 연합회 지도신부)

##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에게 보내온 성금

□ 김준수군 치료를 위해 (7월 10일 퇴원)

※ 치료비 총액 497,550원,

접수된 성금 273,295원

정읍 임명교우 6,000원

부주 중교동 B.F. 5,000원

고산 본당교우들 21,000원

전주 방지겨 상회 (태평동 2가) 15,000원

□ 합일 삼지원(나환자촌) 공소 보수를 위해

남원 오유리안나 10,000원(편집실 접수)

대전신협 직원일동 19,620원( " )

대학병원 아가다회 10,000원( " )

주현동 본당교우들 20,000원

어떤 은퇴 신부님 150,000원

□ 해고된 동일방직 근로자들을 위해

용기있는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죄스러울과

작은 정성드립니다. -장제에서 15,000원

J.O.C 광주관구 훈련회 참석자들 5,670원

### 안경 신장개업!

군 산 이태리 안경원

주 흥 도 민 고 (석수)

군산시 중앙로 1가 10

전화 군산 ③3080번

(안과처방 조제 각국수입렌즈 구비)

###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리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클링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모이세)



## B. F (Bible Fellowship)을 보고

이 순 성 신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교회생활안에 차지하는 성경의 중요성이 주님의 성체와 더불어 생명의 양식을 주는 원천이란 점에 있음을 계시헌장 21항을 통해서 언급하면서 성직자는 물론 일반 평신도들까지 교회목자들의 승인과 지도하에 호명받고 있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며 성경과 친숙해 질것을 열망 하였다. (계시헌장 25항 참조) 그후 수많은 사람들이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라 제각기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현실생활에 "그야말로 말씀을 증거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지표가 될 성질의 것들을 찾아 얻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이 "제각기" 성경 연구와 토론을 거쳐 삶의 지표가 될 성질의 것들을 찾아 얻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교부들은 분명히 "교회목자들의 승인과 지도하에"라고 뜻을 박으면서 동시에 전체 자체의 한부분으로서 성경해설을 성직자 들에게 적극 권장하였기 때문이다. (기록한 전례에 관한 헌장 52항 참조) 다시 말해서 교부들의 의견은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일체의 모임은 교회 권위의 승인과 지도 및 해설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아 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성경연구 시간을 빼놓을 수 없는 순서로 알고 진행시켜 왔던 온갖 가톨릭 모임들은 모임을 갖기전에 우선 성직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당성경 구절에 관한 해설을 들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하는 바다.

여기에 가톨릭내에 기존하는 여러 모임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성직자의 지도하에 성경연구와 토론 그리고 생활에의 적용을 통해서 자신의 성화는 물론 회관 상호간의 친교를 중요시하는 운동이자 하나의 모임으로서의 B. F (Bible Fellowship)는 현대를 사는 교회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 성서 동지회(B. F) 연수회...8월 3일<목>-6일<일>, 완주 송광사 자연의 집

### 부당 해고된 가톨릭 노동자 (동일방직 등)를 도읍시다.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위원회는 지난 4월 8일에 천주교 주교단이 "그리스도교 노동 운동에 가해지는 부당한 박해를 지적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참된 봉사 와 형제애"를 강조한 성명서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되, 특히 해고된 가톨릭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의 수난 외에, 가톨릭 노동 청년회(J.O.C) 출신 노동자들의 수난만 보아도, 지난 4월 1일자로 동일방직에서 가톨릭 노동 청년회 출신 노조지부장 이종각 이하 123명이 집단해고를 당해 현재 생계의 대책이 없이 가구에 방황하고 있으며, 또 태평특수, 경도직물을 비롯한 여러 기업체에서 가톨릭 신자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박해속의 노동자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그리스도교 노동 운동을 지원하며, 그 성명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모금에 이 해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韓國 天主教 正平委

※ 순정이 편집실에서도 성금 접수(4면 전례초식 참조)

## 요심이 (261) 김병연



建設部  
시멘트 제품 제조 免許業體

### 신 흥 공 업 사

파티마 성당 입구

☎ 6016, 2519

李敎成, 김화자(글라라)

◇경운기·분무기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병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매리집)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양심을 찾자 ★  
첨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급기사 모집)

###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 건강 관리 센터 ◎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

( 시내버스 승차장 )

전주 육교옆 중앙 시장동

( 전화 ☎ 4577, 5789 )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대리점 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 5614

전주시 금암동 710~11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신학생 후보자 교육(피정)...7월 30일(일) 오후 4시 접수 가톨릭 센터  
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청년(고교생)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부모님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2. 성서 동지회(B.F) 연수회...8월 3일(목)-6일(일). 원주 송광사 자연의 집. 회비 6,500원
3. 마인드 콘트롤...8월 17일부터,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윤상균(파로)선생, 8월 10일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접수함
4. 성령 책신 세미나...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회비 1만원  
※ 선착순으로 40명만 접수함 (접수처: 가톨릭 센터)  
□ 김준수군의 골수염 치료를 위해 보내주신 성금 273,295원, 감사히 받았읍니다. 뜨거운 형제애에 감사드립니다. -교구 인성회.  
※ 김준수군은 7월 10일 퇴원했습니다. 치료비 총액은 495,550원입니다. (술평이 2면 참조)  
□ '함열 상치원(나환자촌) 공소 도수'와, '해고된 통일방직 근로자 돕기, 성금은 술평이 편집실에서 계속 접수합니다. 앞으로 더욱 뜨거운 형제애 부탁드립니다. (술평이 2·3면 참조)  
□ 군산지구 연합 청년 하기 수련대회(8월 5일 오후 3시 군산역 출발-6일(수)) 장소: 고산메아리  
☆ 박종근 신부님 임관식(8월 5일<토>), 오전 8시 30분 장소: 상무대)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정영  
 보좌 신부 박희영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장남)
2.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3일(목) 오전 10시
3. 성심부녀회 월례회: 4일(금) 오전 11시
4. 주일학교 여름 특별교리: 기간-7월31~8월 5일까지  
시간-오전 9시~11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145,876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김성록

1. 사도회 월례회의: 금일 저녁미사 후
2. 형제회 월례회의: 금일 공식미사 후
3. 애령회 및 학생회 월례회의: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단련모집: 줄거움의 원천 pr에서 단련을 모집합니다  
회합일시-매주(수) 저녁 8시, 대상-미혼여성
5. 하기 특별교리 시간안내  
첫영성체반: 8월1~6일 오후4시, 8월7~14일 오전9시  
장소: 구 성당  
주일학생: 8월1~6일 오전9시 각 교실  
중·고생 남녀: 8월1~5일 오전9시 프란치스코의 집  
6. 축일준비 성가연습: 8월 1일부터(매일) 저녁미사 후  
대상: 어머니 합창단 및 학생 청년 일반신자와 합동  
□ 지난주 봉헌금: 62,426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행  
 사도 회장 유제상

1. 아동(특별)교리: 8월 1일부터  
부모님들의 협조바람 첫교해, 첫 영성체반
2. 학생 하계 단합대회: 7월 31일(고산 메아리)  
회비: 500원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람
3. 심입한 봉헌금에 15% 인상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밀린 봉헌금은 사무실로 납부 바람
4. 학생미사: 토요일 오후 5시 아동: 일요일 오후 5시
5. 박종근 신부님 임관식: 8월 5일 참석하실분 30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선착순 접수바람(40명 한함)  
회비: 1,500원 점심 각각 지참  
□ 지난주 봉헌금: 132,38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8월 둘째주일 오후 2시(성우회후)
2. 복자성당 청년회 발족 준비회: 8월 6일 공식미사 후  
성소: 사제관 회의실 연회: 18세~30세 남·여
3.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7월 31~8월 5일 오전 9시  
~11시 빠짐없이 보내주시고 협조바람  
(특별 성가연습 박부제님)
4. 첫 철레 7: 8월 5일 8시
5. 반회장 회의: 7월 31일 8시
6. 일일교리: 오늘 장동주형제(친청하시면 환영합니다)
7. 특별헌금: 학생회 하기수련회 및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105,000원 인입, 62,000원 입금  
□ 지난주 봉헌금: 164,740원

(서화동)

전화 ②3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애령주일: 10시미사 후 특별기도 부대 기도
2. 하기 특별교리: 7월 31~8월 6일
3. 첫 영성체식: 8월 6일 10시
4.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신축헌금(제 8반)  
강인석 10,000원, 김문숙 15,000, 박형근 15,000원  
이복순 15,000원, 황길용 15,000: 유복순 5,000원  
정정순 6,000원 이옥순 6,400 최선출 5,000원  
총 신입액 2,445,550원(7월 26일 현재)  
□ 지난주 봉헌금: 42,375원

(술평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요안나 월례회: 7월 30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7월 유아세례를 8월로 연기합니다.  
다음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누깰다 부녀회 월례회: 8월 5일 전원 참석 바람
4. 사도회 월례회 8월 6일
5.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8월 7~12일  
(국민학생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00,53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반
2. 성서 동지회(B.F) 수련회: 송광사 자연의 집  
일시: 8월 3~6일
3. 중·고생 하기 수련회: 진안 월포  
일시: 7월 31~8월 3일
4.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책: 값 240원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일시: 8월 7~12일, 8시 30분부터  
□ 지난주 봉헌금: 135,120원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여름 어린이학교: 8월 1~6일  
첫영성체 교리: 8월 1일~8월 15일(국민학교3~6년)  
귀여운 자녀를 마음놓고 맡기세요
2. 매월 첫토요일: 파티마 성모님께 토사리오 기도를 바칩시다
3. 성가교육: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신자 모두 참여를 바랍니다
4. 예비자 교리: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주일미사 후  
에바 교우를 많이 인도합시다
5. 동소승천 3일기도: 8월12~14일(특별강론, 영화상영)
6. 교무금 납입자:  
총삼례 2,000원, 고대석 3,000원, 소병희 2,000원  
채수현 40,000원, 이영자 12,000원, 김성철 6,000원  
정진용 10,000원, 최성진 2,000원, 정귀남 10,000원  
문순덕 1,200원, 박남주 3,000원  
□ 지난주 봉헌금: 31,260원